

월요광장



정봉남
순천기적의도서관장

어느새 계절이 지나가고 한 해의 활동을 갈무리하는 시간 앞에 섰다. 12월의 첫날, 도서관에서는 영화도 찍고 사진책도 만들었던 ‘어린이 문화 예술 워크숍’ 발표회가 열렸다.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는 사이 ‘그림책, 영화가 되다’에 참여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화 시사회를 열었고, 가을에서 겨울로 건너오는 길목에서 ‘사진 놀이’를 진행했던 아이들은 독립 출판물로 사진 에세이집을 제작했다. 카메라로 일상을 기록하고 촬영한 것들을 편집하는 아이들은 나름대로 모두가 예술가였다.

어린이 예술가들의 협업과 창작의 경험이 더 깊고 풍성해지도록 도서관은 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예술가를 연결하고 응원을 보냈다. 엄마와 아빠, 할머니와 선생님들은 박수로 격려를 보냈고,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이다

재미있었다며 뿌듯해했다. ‘생각보다 배우들이 연기를 잘 해 주었다’는 촬영 감독, ‘역시 영화는 편집의 힘’이라는 조연출, 숨은 팜방울이 보이는 ‘메이킹 필름’ 스크립터를, 다른 작품에도 캐스팅해 달라고 홍보하는 배우들의 눈빛은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뒤 ‘우리’가 해낸 것들을 마주할 때의 기쁨으로 반짝였다.

주말마다 도서관에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았고, 언니들의 고집과 동생들의 서툰 감정 표현에 투덜거린 날이 왜 없었을까. 날은 더웠고 엔지(NG)가 날 때마다 반복되는 촬영의 지루함에, 아이들은 서로가 지지치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서 안다. 과정이 끝나고 나서 “언니들이 잘해 줬어. 동생들이 잘 따라 준 거지”라며 서로를 끌어안는 다정함. 이기아발로 훌륭한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경쟁 대신 협업을 배운 아이들은 어떤 경험이 남겨 주는 몽글함 속에서 또 한 번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

한편, 사진 놀이터 아이들은 조용조용 움직였다. “매일 아침, 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다른 하루가 모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사진 놀이터 ‘나의 하루’ 2018년 가을날 기적의도서관에서 시작된 사진 이야기, 작은 카메라와 함

께한 하루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진 에세이집을 펼치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도서관의 어느 자리, 햇살이 만들어 낸 무늬들, 아이들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온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찍은 사진은 하늘이었다. “노을이 지기 전 하늘은 너무 환하기도 너무 어둡지도 않아 좋다.” “이렇게 저런 하늘, 가을 하늘이 멋지다.” “오늘도 볼 것들이 많은 나의 하루”라고 했다. 때론 쪼그려 앉았을 눈높이에서 ‘강아지 기구똥’하고, 햇살이 빛나는 나무를 ‘빛나무’라고 썼다. 작은 렌즈로 들여다본 세상을 밀도 있게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구성했다.

기술적 접근이 아닌 사진을 활용한 예술 활동의 경험,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시선과 감각과 느낌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일이다. 지금의 이 경험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일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나를 표현하는 일에 조금 더 익숙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은 가족이 와서 함께 축하하는 이런 슬렁임과 고양된 시간의 여타가에는 예민하게 감지되는 아이들도 있다. “엄마가 일하러 가서 혼자 혼자 왔어요”라고 말하는

아이. 조용히 발만 까딱이고 있더니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쯤 다가와 할머니가 웅돈 주고 가셨다고 알려 준다. 그때서야 슬며시 웃는다. 표정이 밝아진 아이의 손을 잡고 ‘애썼다, 축하해’라고 말해주는 일이 좋다. “끝나는 거 싫어요. 그럼 헤어지는 거잖아요.” 간식도 안 먹고 밖으로 나가 버리는 아이의 울적함도 이해한다. 자꾸만 문밖으로 고개가 기운다. 울먹이며 돌아온 그 아이가 ‘다음 기수에 또 해도 되죠?’라고 물은 때 ‘그럼’하고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좋다. 따라온 동생들이 다음에 자기도 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그 활기와 소란스러움마저 기분을 좋게 한다. 이 모든 몸짓이 다 어여쁘다.

아이들에게는 거친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놀랐을 때 지그시 가슴을 눌러 줄 다른 존재의 무게가 필요하다. 떨고 있는 아이를 안아 주는 일, 머리를 쓸어 주고 눈물을 닦아 주고 박수를 쳐 주는 일 이야기로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다. 어린이의 함박웃음, 우리의 꿈은 바로 거기에 있을 테니까. 진정 소중한 것들은 그렇게야 곁을 내주지 않겠나.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 한 해를 잘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社說

국가농업유산 지정 계기 녹차산업 활성화를

녹차의 고장인 전남의 보성 전동차와 장흥 발효차 청대전 재배 방식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지역 농민들이 오랫동안 형성한 전통적 농업 시스템과 경관 및 토지 이용 체계가 보존·전승할 가치가 크다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보성 전동차 농업시스템’과 ‘장흥 발효차 청대전 농업시스템’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와 제12호로 각각 지정했다. 보성 전동차 농업시스템은 등고선식 차밭 조성 기술과 뛰어난 경관이 높게 평가됐다. 부족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해 산의 비탈진 면을 곡괭이와 삽으로 고르고 새끼줄로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춰 폭 2m 간격으로 층층이 조성한 점이 호평을 받은 것이다. 장흥 발효차 청대전 농업시스템은 비자나무와 소나무 등 수목 하층부에서 차재배 환경을 조성하고, 녹차를 찌고 절구해 찜어 딱자를 만드는 비법을 독특하게

유지해 온 것이 가치를 인정받았다.

보성은 국내 최대의 녹차 주산지로 녹차는 지역 농가 소득의 효자 종목이었다. 녹차밭은 2013년 미국 CNN의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했다. 장흥의 발효차 청대전도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뽑은 ‘맛의 방주’에 선정돼 보존 가치를 공인받았다.

하지만 국내 차 산업은 젊은 층이 주도하는 음료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09년 7500억 원이었던 차 산업 규모는 지난해 34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커피는 지난해 11조 원을 넘어서며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녹차 재배 방식의 국가농업유산 지정은 의미가 크다. 전남도와 해당 시군은 젊은 층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스토리텔링 개발과 관광 자원화를 적극 추진해 녹차 산업 부흥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전두환 광주 재판’ 결정 당연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후로 미국 정부는 한국 군부가 분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막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이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미국은 한국 군부를 안정시키기 위해 군부를 장악할 수 있는 실질적 권력인 전두환 씨가 정권을 유지하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던 전두환 씨에 대해 ‘광주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5·18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는 결국 광주 재판장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 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헌법과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성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피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낸 재판비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 신청을 했다.

지난 8월 27일 첫 공판에서 역시,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에 따라 그는 이제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전 씨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핑계를 대거나 꾀수를 부리지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서서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꿈꾸는 2040

다음 세대의 도전은 ‘평등’이다



강수현
위민연구원 이사·스토리박스 대표

한국 전쟁 이후 한 세대를 의미하는 30년을 두 번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두 가지의 자부심이 있었다. 하나는 산업화이다. ‘하먼 된다’는 각오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시간에 이룬 경제 성장은 전쟁 이후 분단의 상황 속에서도 일궈낸 훌륭한 성과였다. 또 다른 하나는 민주화이다. 청소년들과 넥타이 부대까지 가세한 민중들의 피와 땀으로 군부 독재를 무너뜨렸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열사들의 정신과 이름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로 남아있다.

그런데 그 사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는 대기업을 육성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 부는 늘어났지만, 큰 형이 잘되면 동생들을 챙겨줄 것이라는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보통 국민들의 삶은 민주화 이후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1993년 상위 10%의 수입 비중이 전체 29%였던 것에 비해 2013년에는 44%로 상승했다. 먹고 살 같은 막막하고, 희망은 절박한 사회가 되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가장 심각한 위협 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 대부분은 ‘수저 계급론’에 공감한다. 부모나 집안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라 기회가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3포, 5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 헬조선 등 희망없는 사회를 자조적으로 표현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앞선 세대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세상을 변화시킨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씁쓸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는 자식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온갖 노력과 희생을 했지만, 자식 세대는 꿈을 꾸지 않는 절망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지금의 기성세대

가 자식 세대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 생각도 없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모순이 고 비극이다. 어떤 이들은 지금의 청년 세대는 기성세대가 강요한 틀에 자신을 맞추느라 부모 세대와 같은 시대정신이나 세대정신을 찾는 것은 사치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세대도 기성세대들이 짜놓은 틀에 오늘을 살 필요는 없다. 곧 다가올 미래는 기성세대의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는 ‘평등화’를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어떤 의제든지 평등한가 따져보자. 대한민국 내부에서 따져보기도 하고, 세계로 눈을 돌려 따져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주거 문제, 과연 평등한가? 서민 주거 안정의 토대가 되어야 할 공공 임대주택의 비중은 비중은 5.5%로, OECD 평균 11.5%의 절반에 불과하다. 32%에 달하는 네덜란드가 일, 20% 안팎의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이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집을 가진 사람의 이해관계로만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자.

또 다른 예로 교육 문제, 과연 평등한

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사교육 비용도 적다. 반면 소득이 많은 집일수록 사교육에 더 참여하고 비용도 많이 지출한다.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학교생활종합기록부를 따로 관리해주는 사교육도 있다고 하는데 과정의 불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자.

모든 의제에 있어서 세가지 평등을 차례로 생각하자. 모두에게 경제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기회’의 평등, 공평한 기회 속에서 모두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는 ‘과정’의 평등, 공정한 경쟁의 결과를 제대로 분배하는 ‘결과’의 평등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따져보자.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 “원래 그렇게 했어야”를 부정하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자.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평등한가. 자본과 노동은 평등한가.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가. 농촌과 도시는 평등한가. 난민과 국민은 평등한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기 고

광주·전남 화교(華僑) 이주 125주년



양세영
홍익대 겸임교수
동북아 지역교류포럼 상임대표

최근 사드 논란으로 뚝 끊겼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2016년 수준은 멀고 요우커(遊客)의 본격적인 유입도 지연되고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에 대한 중국 관광객의 방문 비중은 4% 내외에 불과하여 이런 회복세가 큰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광주·전남은 면세점, 카지노 등과 같은 쇼핑과 워락 장소가 없는데다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선호도가 낮고 정보나 인식도 부족하다.

다행히 전망은 어둡지 않다. 중국은 무궁무진한 관광 잠재수요를 갖고 있는데다 관광객의 관심도 쇼핑에서 자연과 생태, 그리고 문화로 옮겨가는 추세다. 교

통 및 면세점과 같은 관광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노력과 함께 자연과 맛, 사람과 문화, 역사가 어우러지는 광주·전남만의 관광 매력을 최대한 활용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문화를 중시하는 체류형 고급 관광객 수요를 대비하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

2018년은 화교(華僑)가 우리 광주·전남 지역에 진출한지 125년 되는 해이다. 1893년 중국 산둥성 지부(현재의 연태시)를 출발한 학경해와 강만선이라는 2명의 상인이 목포에 처음 발을 딛고 ‘영성인호’라는 포목상을 개설하였다. 이들은 목포 화교의 효시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목포에서의 사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산강을 타고 무안, 나주, 광주, 능주에 이르는 내륙 상권을 개척하기 위해 왔기에 광주·전남 화교의 시원이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전남에는 한때 1600명이 넘는 화교가 비단과 삼베를 중심으로 활발한 상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호남은행과 광주 북동성당 등 다수의 근대 벽돌 건물을 시공하였고, 전남 지역의 향만 및 하수도 매축, 철도 부설에도

참여를 하였다.

광주의 화흥루, 목포의 인의관은 일제 강점기에 호남 최고 수준의 중국 요리점들로 이름이 높았다. 1930년 광주-여수간 철도 부설 공사에서는 일제에 대항하여 200여 명의 화교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와 연대하여 동맹 파업을 시도한 적도 있었다. 이렇듯 지난 세월 동안 화교들은 광주·전남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무엇보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광주·전남~중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귀중한 인적·지역적·역사적 자원을 남겨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화교들에 대한 관심은커녕 올해가 화교 이주 125년이라는 사실도 아는 이가 거의 없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중국의 자본이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대부분 미미한 성과뿐이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준비도 없이 결과만을 얻고자 급급했던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미 우리에게 왔었던 지역 화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인식은 물론 마땅히 기념해야 할 해도 그냥 넘기는 상대 벽돌 건물을 시공하였고, 전남 지역의 향만 및 하수도 매축, 철도 부설에도

면서 늘 느끼는 바이지만 중국인은 자주 만나 신뢰를 쌓고 소위 ‘관시(關係)’를 형성해야 일이 된다.

관시는 일단 자주 만나야 하지만 진정성이 있을 때 더 견고해지는 것이다. 현대 중국의 5대 상방(商幫)중 하나인 산둥 상방이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저어얼 그룹과 하이센스 등 세계적인 전자 업체들과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더블스타도 산둥 기업들이다. 중국의막대한 내수 시장을 생각하면 향후 광주·전남권은 생산 기지로서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들과 제휴만 할 수 있어도 광주·전남 경제의 활성화와 산업 기반 확충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산둥 상방이 바로 광주·전남 화교의 후예들이라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광주·전남 화교의 진출 125년에 대한 관심과 조명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런 전략적 관점도 중요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신산했던 동북아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인고의 세월을 의연히 감내하며 광주·전남 주민들과 동고동락 해온 화교들에 대한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절절한 사의를 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올해가 가기 전에.

無等鼓

‘테러리즘’은 적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공포’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현재의 정치 상황을 바꾸려 드는 전략이다. 상대적으로 약한 집단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테러 집단은 암살이나 자폭 같은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공격을 통해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물리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보다 훨씬 큰 정치적 결과를 이끌어 내려 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러 집단으로는 ‘아사신 파’로 불리는 중세 중동의 ‘니자리 파’를 들 수 있다.

피다이

살을 위해 파견된 ‘피다이’들은 목표로 지목된 인물의 곁에서 몇 년씩 충실한 부하로 봉직하다 상부의 명령이 떨어지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단검을 사용해 살해했다. 피다이들의 이 같은 행동 패턴은 당시 중동의 군주들로 하여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언제든 참혹하게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갖게 했다.

당시 ‘산속의 노인’으로 불리며 1160년부터 30년간 니자리 파를 이끈 라시드 알딘 시난은 자신을 위협하는 중동의 맹주 살라딘에게 “나는 당신의 진영 내부에서부터 당신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집에

서 당신에게 복수할 것이다”라고 압박했다. 살라딘은 결국 1174년과 1176년 두 차례에 걸친 피다이의 암살 기도를 겪은 뒤 더 이상 니자리 파에 손을 대지 못했다.

최근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산 반군에 대항하는 암살단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필리핀 공산당의 특수 조직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두테르테의 설명이다. ‘테러에는 똑같이 테러로 대처하겠다’는 것이겠지만, 그 배경에는 ‘암살’에 대한 공포도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공개적으로 ‘암살단 운영’을 선포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공개 선언은 국민에게 극심한 공포를 심어 줄 우려가 있으며, 이는 테러 집단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타국의 고유한 사회·정치 상황을 ‘보편과 상식’이라는 기준에만 맞춰 평가하는 것은 설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급증하는 만큼 우리도 타국의 테러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듯 같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처 부 220-0632 정 계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문 채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